산업기술연구(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제17집, 1997.
Research Report. The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angwon Nat'l Univ., Korea, No.17, 1997.

江原道 嶺西地方 民家에 관한 硏究
- 平面類型을 中心으로 -

유 승 용*

A Study on the Traditional Houses in Young Seo District of Kangwon-Do
- Focused on the Floor Plan Types -

Ryu, Seung-Y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floor plan types of the traditional houses in Young Seo District of Kangwon-Do.

In the light of this previous studies concerning Korean traditional houses the examin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on the house form in terms of the floor plan type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民家는 傳統社會를 구성하고 있던 대다수의 民衆, 다시 말해서 그 사회의 보편적인 核을 이루던 基層에 속한 사람들의 구체적이며 종합적으로 투영된 사료이다.[1] 이는 時代를 초월한 기나긴 生活의 경험이 집약되고 생활속에서 얻어진 지혜가 축적되어 환경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地域的 특징과 전통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江原道는 우리 나라 中部地域의 東半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太白山脈에 의해 嶺東·嶺西地方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嶺西地方은 크게 우리 나라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나 山間지역으로 구분되어 自然環境은 물론, 生活圈과 社會·文化的 環境조건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江原道地方의 여러 환경적 요소가 작용한 民家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江原道 民家에 관한 硏究"[2]를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論文은 계속된 硏究의 일환으로 嶺西地方 民家를 대상으로 최근까지 수집된 자료를 보완하고, 이를 근거로 民家의 평면유형을 규명한 후, 環境的 특성과의 관련성 및 表出方法을 분석·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論文은 現代化 과정에서 매우 급속도로 사라지고, 변질되어 가는 江原道 嶺西地方의 傳統民家를 대상으로 現代에 수용되어야 할 전통적 맥락을 찾기 위한 계속된 연구의 일환이다.

본 硏究의 對象地域은 太白山脈의 서쪽에 위치한 嶺西地方으로 典型的인 山間內陸地域이라 할

*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曺成基, 한국「中部型」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7권 제3호. 통권35호, p.82 1991. 6.

2) 유승용·박경립, 강원도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8권 117호, p.37~44, 1984. 3~4.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中部地方에 속하면서 그 서쪽은 서울을 中心으로 하는 소위 首都圈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自然的 環境要素는 물론 社會·文化的 環境要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大東輿地圖에는 강릉의 행정구역이 嶺西地方의 洪川 內面, 平昌郡의 珍夫·大和·道岩·逢坪面 등까지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太白山脈이 지역 경계의 역할은 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交通路가 강릉·진부·대화·홍천으로 연결되어 있어 生活圈이란 점에서는 時間距里가 태백산맥 서쪽의 일부 지역이 原州보다는 江陵쪽에 더 가까웠으리라 생각된다.[3]

따라서 江原道의 地域區分에서는 自然環境·文化環境·生活圈 및 農業地域 등의 지표에 의해 구분되는데, 이들 지표와의 관련성에 의해 民家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이론 고찰 및 관련 연구를 검토한 후, 현지를 방문하여 실측 및 사진촬영을 하여 民家資料를 수집하였으며, 일부는 기존의 다른 연구자의 자료로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嶺西地方 民家의 특징 및 중부지방 民家와의 차이점을 平面類型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춘천시 11동, 인제군 9동, 홍천군 1동, 횡성군 9동, 평창군 5동, 원주시 1동, 영월군 6동, 정선군 1동 등 총 43동이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의 민가자료를 찾지 못한 것이 아쉬운 상황이다.

2. 對象地域의 環境特性

2.1 자연환경 조건

民家는 마을의 자연환경과 커뮤니티, 素材의 생산력과 住民들의 노동력과의 균형 속에서 초시간, 초공간적인 균형을 취한 형태로서 합리적이고, 창조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는 環境的, 文化的 다양성이 명확히 반영된 것으로 한 지역 民家建築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民家를 이루고, 계속 保存할 수 있게 하였던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추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江原道는 이 지역을 南과 北으로 가르면서 嶺東과 嶺西로 구분하는 太白山脈의 본 맥과 크고 작은 지맥으로 덮인 산의 고장이다. 태백산맥은 평균 높이가 약 1,000 m이며 東海로 치우쳐서 길게 뻗어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강원도의 東·西 交通의 큰 장애가 되어 영동과 영서의 역사를 가르기도 했으며, 문화와 풍속, 기후의 분기점이 되기도 하였다. 영동지방은 동쪽으로 급하게 떨어지는 태백산맥의 東斜面과 좁고 긴 해안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나, 영서지방은 넓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지방은 대관령(832 m),한계령(1,003 m), 진부령(529 m) 등의 고개를 통해 연결된다.[4]

江原道地域은 일반적으로 해발이 높은 高山地帶이기 때문에 위도에 비해 기온이 낮으며 영동과 영서지방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겨울과 여름의 온도도 고장마다 다르고, 봄과 가을에 걸쳐 內陸과 海岸, 山岳과 盆地의 계절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Fig.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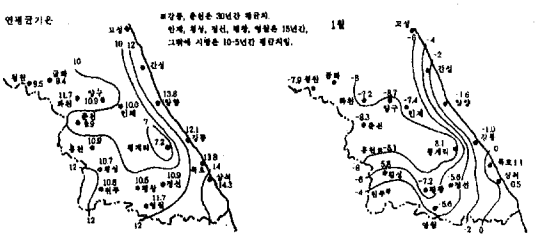

Fig. 1 강원도의 8월과 1월의 평균기온(℃)
(출처 : 江原道·江原道史(歷史編), 강원일보사, p.159, 1995.)

이는 Fig. 2에서와 같이 기온변화는 위도(緯度)보다는 地形에 따른 東·西 분포의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고, 연평균기온의 지역적 변화는 西쪽에서 太白山脈의 산간지대로 가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산맥을 넘어 東海岸에 이르면서 기온은 점점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5]

또한, 江原道의 地域區分은 自然環境·文化環境·生活圈 및 農業地域 등의 지표에 의한 방법[6]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江原道, 江原道史(歷史編), 江原日報社, 春川, p.98, 1995.

4) 국립민속 박물관,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 태웅 그래픽, 서울, p.12, 1994.

5) 江原道, 江原道史(歷史編), 江原日報社, 春川, p.158, 1995.

6) 江原道, 江原道史(歷史編), 江原日報社, 春川, pp.98~102,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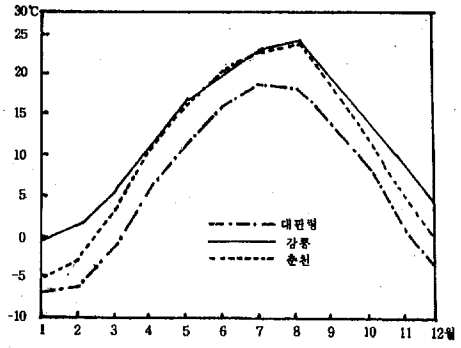

Fig. 2 대관령·강릉·춘천지방 기온의 연변화 (1951~1980) (출처 : 江原道·江原道史 (歷史編), 강원일보사, p.158, 1995)

自然環境에 의한 區分은 지형적 특색에 의해 태백산맥 동쪽의 嶺東, 서쪽은 임진강 유역의 鐵原臺地 지방, 北漢江 상류지방 및 南漢江 상류지방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文化環境에 의한 區分은 자연적인 특색에 인문적인 지표를 크게 가미시켜 江原道를 6개 지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영동지방은 북부·중부 및 남부로 구분하였다.

영서지방은 철원군만 포함되는 북부지역과 春川을 중심으로 홍천·인제·양구·화천을 포함한 중부지역, 그리고 원주·정선·평창·횡성·영월을 포함하는 남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生活圈에 의한 區分은 국토종합개발에 의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春川·原州·江陵의 3개 지역으로 區分한다. 春川圈은 春川中圈과 洪川中圈으로 세분되고 原州圈은 原州中圈과 寧越中圈으로 세분된다.

農業地帶에 의한 구분은 강원도의 농업개발을 중심으로 6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東海北部, 東海南部, 고랭지, 산간경사지, 嶺西北部, 嶺西南部地域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알맞는 農作物을 재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는 각각의 自然環境的 배경을 지역적 지표로 하여 생활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2.2 인문환경조건

江原道 地方의 오래된 聚落발생지를 고고학적 유적발굴을 통해 살펴보면 新石器時代의 유물은 영동지방인 강릉, 양양과 영서지방인 춘천을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중에서 기원전 10세기에서 9세기로 추정되는 春川의 내평 신석기 말기 문화는 두만강 유역으로부터 유입되어 계속 남쪽으로 확산되었다.

靑銅器時代의 유물은 영서지방에서는 한강유역의 춘천, 양구·홍천, 화천, 횡성, 인제, 원주, 영월, 정선, 평창 뿐만 아니라 임진강 상류의 철원 등지까지도 출토되고 있다.

鐵器時代의 유적은 춘천, 양구·횡성·영월, 평창, 강릉, 양양에 집중되어 있어 청동기시대 이후 이들 지역이 地域中心体로 성장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전파는 동해안 루트, 동해안으로부터 관동내륙으로 유입된 루트, 서해안 루트로 요약되는데 그 이후 人口의 증가, 耕作地의 개척, 교통로의 발달, 농경기술의 발전 등에 의해 동해안지방,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남한강유역 등지에 취락이 형성되고 발달되었다.

朝鮮時代 이전의 주요 취락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서지방에서는 한탄강 유역의 철원, 북한강유역의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등지와 남한강유역의 원주, 영월, 정선 등지가 주요 취락이었다.

조선시대 초기의 인구규모에 의한 취락을 살펴보면 2,000명 이상의 취락으로는 영동지역에서 강릉, 삼척과 영서지방에서는 원주·홍천, 춘천 등이 있고 1,000명 이상의 취락으로는 양양, 통천, 울진·회양, 고성, 평해 등이 있어 동해안 지방의 취락규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자원개발, 교통의 발달, 인구의 증가, 그리고 점차 근대적 상공업이 발달되면서 행정, 군사기능 중심의 도시뿐만 아니라 교통·상공업 중심의 도시가 발달되었다.

1935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춘천읍 16,000여명, 강릉읍 17,000여명, 철원읍 20,000여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였으나 당시 江原道 총인구 1,605,000여명의 3.3%에 불과한 都市率이다.

춘천은 行政의 중심지로, 강릉·원주·철원은 교통의 중심지로, 삼척은 근대산업의 발달로, 속초, 주문진, 묵호, 북평 등지는 어업의 발달로 각각 성장된 都市들이다.

1944년에는 10개읍 지역에 거주한 人口가 20여만명으로 증가하여 당시 강원도 총인구의 10% 이

상의 인구가 都市地域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구는 農村地域과 漁村 그리고 山村에 거주하였다.[7]

産業社會로 접어들면서 모든 분야에서 발달되고, 국가경영이라는 이름하에 國土도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조건에 맞추어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개발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生活圈域을 중심으로 江原道를 구분하면 春川·原州·江陵 등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春川圈은 春川中圈과 洪川中圈으로 세분하는데 춘천중권에는 춘천·철원·화천 및 양구의 小圈으로 세분되고, 홍천중권에는 홍천·인제지역이 포함된다. 인제가 홍천중권에 포함되는 이유는 소양강댐의 건설로 춘천-인제간의 국도가 홍천을 거치게 되어 홍천, 인제간의 생활권이 밀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原州圈은 原州中圈과 영월中圈으로 세분하여, 원주중권은 원주·횡성·평창의 소권을, 영월중권은 영월과 정선의 소권을 포함하는데 이중 정선군의 임계면, 평창군의 도암, 진부면이 강릉중권에 속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江陵圈은 속초와 고성의 소권을 포함하는 東草中圈, 강릉시와 명주·정선(임계면)·평창(도암, 진부면)군의 일부를 포함하는 강릉중권, 태백시와 삼척을 포함하는 태백중권 등으로 세분된다.

생활권에 의한 구분은 유통구조를 가장 큰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의 郡보다 面單位를 기준으로 한 점이 특색이다.

특히 南部地方의 지역구분이 다른 구분방법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鐵道, 嶺東高速道路 및 도로포장에 따라 주민의 생활편의가 많이 달라졌음을 나타낸다.[8]

3. 영서지방 민가의 실례 및 유형 분석

3.1 민가 실례 분석

(1)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암자골, 박영근씨 민가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인 귀틀집이다. 2칸의 공간구성은 주거공간에서 가장 기본인 방 1칸과 부엌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 집이 위치한 곳은 화전민들이 화전을 일구면서 생활했던 곳으로 집의 구조 또한 간단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지붕은 양철슬레이트를 올렸고 그 형태는 우진각 지붕이다. 집은 경사면에 축조한 관계로 자연석을 약 5.31 m 높이로 쌓아 높은 기단을 형성하고 있다.

귀틀은 방 1칸만을 귀틀로 짜올렸는데 귀틀을 형성한 목재도 그다지 굵지 않고, 귀틀의 엎은장, 받을장의 홈도 그다지 깊지 않다. 또한 목재와 목재 사이에 진흙도 충분히 바르지 않아 틈사이가 벌어져 있다.

귀틀이 형성된 네 귀퉁이에는 큼직한 자연석의 초석을 놓아 집의 하중을 받게 하였는데 이는 벽 자체가 하중을 직접 받기 때문에 초석의 크기가 매우 큰 편이다.

방으로 출입하는 전면의 문은 세살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문살의 두께가 굵고 투박하다. 전면 문의 반대쪽에는 문이나 창이 설치되었던 듯 양쪽에 문설주가 세워져 있으나 현재는 흙으로 발라져 있다.

부엌은 후에 증축된 듯 보이며 그 벽은 양철슬레이트로 막아 비바람을 피할 정도의 구조물이다. 내부에서는 솥이 1개 걸린 부뚜막에서 방을 난방하고 물을 끓이며, 취사는 제주도의 봉덕화로처럼 부엌바닥에 돌을 2~3층 쌓아 화로를 만들고 부뚜막과는 별도로 취사를 하고 있다. 부엌과 방 사이의 벽에는 통행의 편리를 위해 문을 설치하였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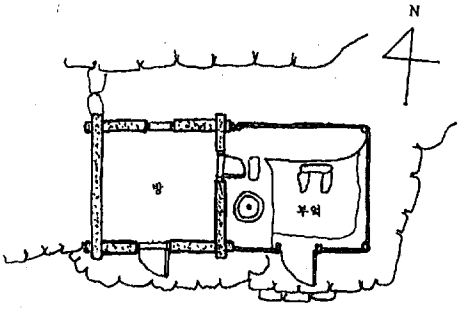

Fig. 3 박영근씨 민가 평면도

(2) 영월군 하동면 내리 소야치 4반 331 번지, 김경하씨 민가

7) 江原道, 江原道史(歷史編), 江原日報社, 春川, pp.206~208, 1995.

8) 江原道, 江原道史(歷史編), 江原日報社, 春川, p.99, 1995.

9) 국립민속박물관,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 태웅그래픽, 서울, p.198, 1944.

영동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田子型의 겹집으로 주인이 직접 건축하였다고 한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一字型으로 높이 80 ㎝ 정도의 자연석 기단위에 건축하였다.

지붕은 초가였으나 현재는 슬레이트를 얹은 모임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다.

평면의 구성은 2칸 규모의 큰 정지를 중심으로 우측 前面에는 토방과 사랑방이 있고 그 후면에는 안방과 도장방이 배치되어 田子型을 취하고 있다.

민가 전면 중앙에 위치한 토방은 마루의 원시적 구조로 그 전면은 트여 개방시켰고 민가 전체로 보아도 울타리가 없이 완전 개방형식의 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다른 민가와 비교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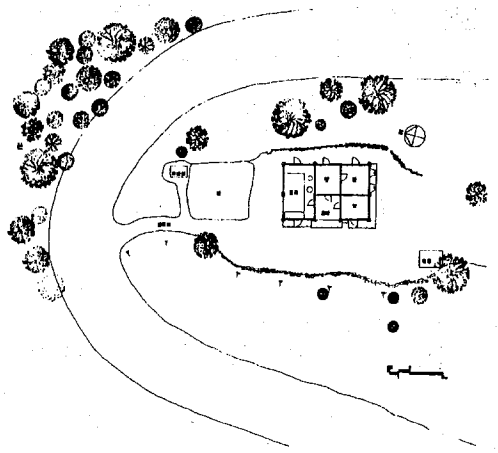

Fig. 4 김경하씨 민가 평면도

(3)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5반, 심홍섭씨 민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부엌 전면에 외양간을 배치하여 ㄱ子型을 취한 홋집형이다.

민가의 위치는 후면에는 낮은 산과 전면에는 논으로 둘러싸인 농촌주택으로 2칸의 방은 모두 통나무를 쌓아 벽체를 구성한 귀틀집이다.

집의 좌측에 배치한 부엌은 자연석과 나무가지로 벽체를 구성하고, 그 전면에는 역시 자연석을 쌓아 벽체를 구성한 외양간을 배치하여 ㄱ子型을 취하고 있다.

지붕은 초가로 모임지붕 형식을 하고 있다.

민가의 전후면에는 원형의 기둥을 3개씩 배치하고 지붕을 얹어 전면에서는 봉당으로 쓰고, 후면에서는 물건을 놓는 수장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배치는 집을 중심으로 그 양끝에서 후면으로 지형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자연석을 쌓아 담장을 이루고, 그곳에는 장독대, 김치각을 놓아 여성만의 공간으로써 이곳은 부엌에서만 통하게 하여 폐쇄적인 공간을 취하고 있다.

민가의 전면은 마당공간을 두어 농촌에서 작업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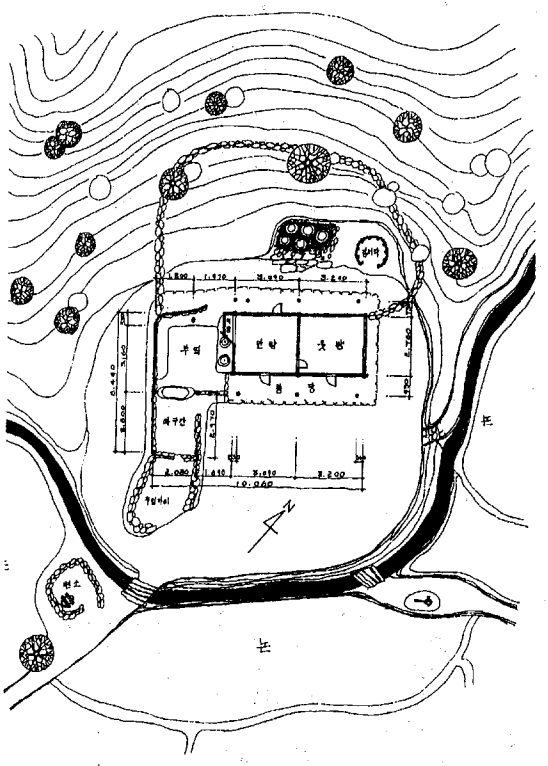

Fig. 5 심홍섭씨 민가 평면도

(4) 춘천시 서면 덕두원 2리 3반,
이문창씨 민가

마루를 중심으로 건너방과 웃방을 배치하고 웃방 앞에는 안방과 부엌을 배치하여 ㄱ子型을 하고 있다.

이 민가는 부엌이 동서로 트여 서울지방형[10]의 민가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과의 교통의 편리로 인한 생활·문화권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배치에서는 집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담장을 쌓고 그 안에서 민가과는 분리하여 외양간을 배치한 것이 농촌주택임을 보이고 있다.

변소는 두엄과 같은 공간에 배치하여 그 벽체는

10)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p.81, 1980.

자연석을 쌓아 형성하고 지붕은 초가를 얹었으며 위치는 위생적인 면과 터전과도 고려하여 담장 밖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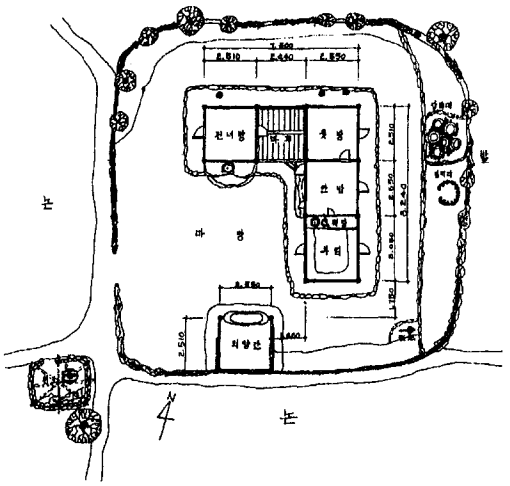

Fig. 6 이문창씨 민가 평면도

[5]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이이득씨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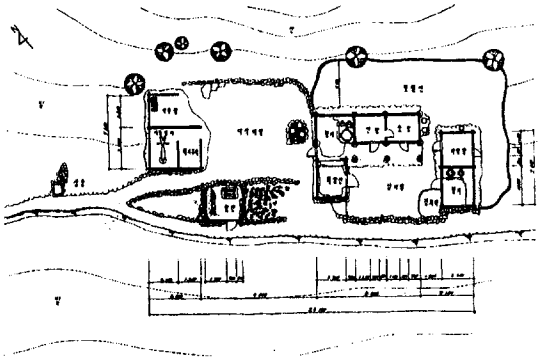

Fig. 7 이이득씨 민가 평면도

안채와 사랑채가 별채로 배치되어 튼 ㄷ子型을 취하고 있다. 안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에 부엌 앞에 외양간을 배치하여 ㄱ子型을 이루고, 사랑채는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一子型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목의 원주를 세워 축조하였는데 벽체는 흙을 바르고 외양간은 판재를 사용하고 있다. 외양간은 산간형 민가의 영향을 받아 부엌 앞에 접하여 배치하므로써 가축의 보온과 생활동선의 단순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랑채는 방과 부엌공간으로만 구성된 단순한 형태이지만 농촌주택에서 별채로 구성되는 초기의 상태로 볼 수 있다.

디딜방아, 나무광 등의 공간과 뒷간·두엄 공간이 별도로 배치되어 그 사이에 형성된 타작마당 공간을 둠으로써 어느정도 농사를 많이 짓는 농촌주택임을 보이고 있다.

(6) 춘천시 남면 수동 1리, 목영구씨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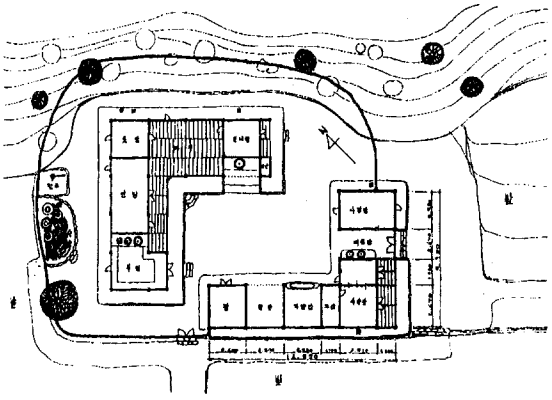

Fig. 8 목영구씨 민가 평면도

ㄱ子型의 안채와 ㄴ子型의 사랑채가 구성되어 튼ㅁ子型을 취한 배치형태이다.

영동지방에서는 대부분 안채와 사랑채가 서로 붙어 ㅁ子型을 이루는데 영서지방에서는 모두 안채와 사랑채가 별동으로 분리 배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안채는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건너방을 배치하고 좌측으로는 웃방, 안방, 부엌이 직각으로 배치되어 ㄱ子型을 취하고 있다.

부엌이 좌우로 트여 서울지방 민가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랑채는 사랑방을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외양간·헛간·광 등의 공간이 배치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각되게 대문간과 또다른 사랑방(또는 머슴방)이 배치되어 ㄴ子型을 하고 이들이 서로 배치되어 전체로는 튼ㅁ子型의 민가형태를 취하고 있다.

담장은 사랑채의 양단에서 시작되어 안채를 둘러싸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영동지방의 담장의 구성형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2 민가유형분석

우리나라의 전통민가는 크게 홑집형과 겹집형

으로 분류되는데 영서지방의 민가도 예외는 아니다. 또 이를 마루(툇마루가 아닌것)의 有無에 따라 類型別로 분류하면 Fig.9와 같다. 여기서는 부엌과 방이 3실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의 발전될 과정을 想定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가-1 계열

몸채에 마루가 없는 홑집 ㄱ字型으로 몸채만 있는 경우와 몸채와 사랑채가 배치되어 튼ㄷ字型을 이룬 계열이다. 몸채에서 ㄱ字型을 이룬 것은 부엌 앞에 마구간을 배치하여 이룬 형인데 주로 山間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민가형이다.

(2) 가-2 계열

몸채에 마루가 있는 홑집 ㄱ字型으로 안방, 마루 및 건너방이 건물의 中心部分이 되어 한줄로 놓이고 부엌이 안방 앞으로 직각되게 배치되어 구부러지는데 안방 위에는 보통 웃방이 배치된다. 이러한 형을 서울型으로 분류하는데 中部型[11]도 이와 비슷한 점이 많다.

사랑채는 대부분 몸채와 별도로 배치되는데 그 형태는 一字型 또는 ㄴ字型으로 몸채와의 배치형태는 튼ㄷ字型과 튼ㅁ字型의 민가형태를 취하고 있다.

(3) 나-1 계열

마루가 있는 겹집 一字型으로 부엌이 건물의 한 끝에 배치된 형과 부엌이 건물 안쪽으로 배치된 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부엌이 한 끝에 배치된 형은 전후면에 2개의 방이 배치된 것이 기본형으로 일명 田子집이라고도 하는데 전면 중앙에는 마루를 배치하고, 방이 8개까지 배치된 형도 보이고 있다.

(4) 나-2 계열

마루가 없는 겹집 ㄱ字型이다. 이 형은 田字집의 기본형으로 마루가 전혀 없이 방만으로 구성되는데 부엌의 앞에 마구간을 배치하여 집의 형태가 ㄱ字型을 취하고 있고 山間地域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5) 나-3 계열

마루가 있는 겹집 ㄱ字型이다. 부엌을 중심으로 1편에 방이 4개 또는 6개까지 배치되고 있는데 부엌 옆과 접한 前面에 마루를 배치한 형이다. 부엌 앞에는 마구간을 배치하여 집의 형태가 ㄱ字型을 이루는데 이는 山間地域에서 가축의 보온을 위함과 동시에 생활동선의 단축을 꾀한 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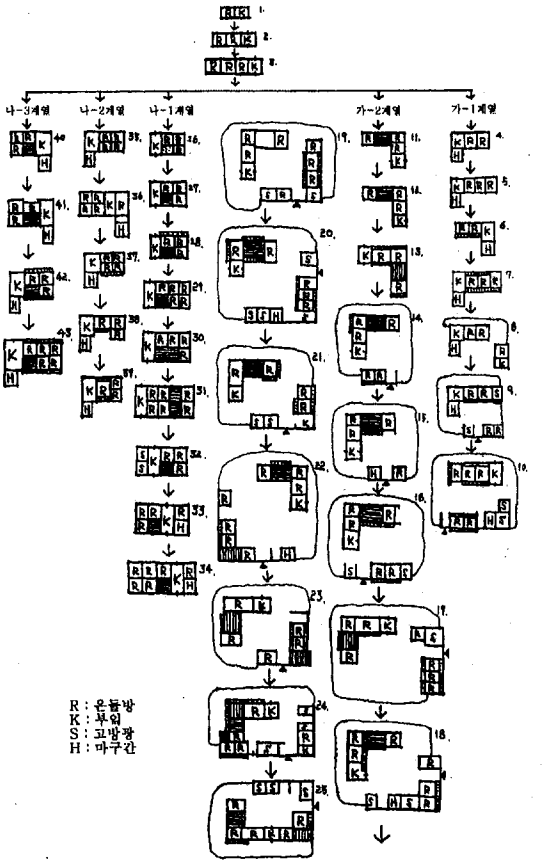

Fig.9 민가 발전과정 상정도

참고) 民家 所在地

1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암자골 박영근
2.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구용수
3.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엄봉선
4.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심홍섭
5. 인제군 남면 어론1리 이용봉
6.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손동만
7. 인제군 기린면 방동1리 손만하

11) 中部型 ; 서울型의 住宅平面과 비슷한 점이 많다. 서울型의 경우는 안방·마루 및 건너방이 건물의 中心部가 되어 한줄로 놓여 부엌에서 구부러지는데, 중부형은 부엌·안방·웃방 등이 中心部가 되어 마루가 안방 또는 웃방에 붙어서 직각으로 구부러져 그 끝에 건너방이 놓인다. 사랑채는 大門채와 一体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大門의 좌·우에 방을 놓는 경우가 많다. 이 건물은 보통 몸채와는 떨어져 독립하여 만들어 진다.(金正基,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 Ⅳ,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p.180, 1971.)

8.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이이득
9. 춘천시 남면 수동1리 김시경
10. 홍천군 남면 신대1리 이석홍
11. 춘천시 남면 방곡2리 이규순
12. 춘천시 서면 덕두원2리 이문창
13. 인제군 남면 어론1리 김씨댁
14. 영월군 남면 북쌍1리 우구정
15. 춘천시 남면 수동1리 홍우표
16. 영월군 수주면 무릉3리 원용성
17.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김정은
18. 춘천시 남면 수동1리 목영구
19. 춘천시 동면 장학리 민성기
20.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최재근
21. 춘천시 서면 안보1리 김씨묘막
22. 영월군 남면 창원1리 고진하
23. 춘천시 서면 금산리 박광순
24. 춘천시 서면 서상리 김봉희
25. 원주시 문막면 건등리 김두한
26. 영월군 하동면 내리 김경하
27. 횡성군 갑천면 유동2리 이상준
28. 횡성군 안흥면 상안1리 이정화
29. 횡성군 안흥면 지구1리 임종성
30. 횡성군 위천면 정암리 김동선
31. 정선군 임계면 봉산2리 정재식
32.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이상정
33. 영월군 하동면 내리2반 전석주
34. 영월군 하동면 와석2리 박진기
35. 평창군 방림면 방림3리 김혜수
36.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고광설
37. 인제군 상남면 금부1리 김태수
38. 횡성군 안흥면 상안1리 김경만
39. 인제군 기린면 현리5리 오만식
40. 횡성군 안흥면 상안1리 김익승
41. 인제군 상남면 상남2리 박형수
42. 인제군 기린면 방동1리 김성덕
43. 인제군 기린면 북3리 이병성

4. 중부 및 서울지방형 민가와의 비교

전통민가에서 주요건물의 平面的인 차이는 주로 몸채(안채)의 방배치의 차이에서 볼 수 있으며, 江原道地方의 민가에 관한 기존 연구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金正基교수는 함경도를 중심으로 하여 평안북도 일부에 분포하는 北部型[12]이 江原道 北部地方에 분포하여 있고, 京畿道를 중심으로 황해도 남부와 忠淸道地方에 분포된 中部型이 江原道 南部에도 분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張保雄교수는 山地型의 민가분포가 과거 火田民 분포지역과 일치한다고 보며 이 家屋形態는 겨울을 지내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폐쇄적인 민가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江原道의 위치는 우리나라 中部地方의 동반부를 차지하며 중서부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같이 韓半島의 中央的 위치에 있다.

영서지방은 태백산맥의 서쪽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中部地方인 경기도·충청북도와 접하여 있고 일부 경상북도와도 접하고 있는데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서쪽은 교통 등의 발달로 경기도 충청도와 쉽게 접하고 그 동쪽은 山間內陸을 형성하여 교통이 매우 불편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영서지방의 民家類型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嶺西地方이 위치한 특징으로 北部型인 홑집형(부엌 앞에 마구간이 붙은 형)과, 겹집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가-2 계열에서 몸채를 기준으로 서울型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5동 중에서 3동만이 中部型이고 나머지 12동이 서울型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몸채만이 있는 민가 3동중 1동이 中部型이고 나머지 2동은 서울型이다. 또 사랑채가 있는 민가에서는 12동중 2동이 中部型이고 나머지 10동은 서울型인데 몸채와 사랑채가 배치된 민가형태에서는 1동만이 서로 연결되어 서울型을 나타내고, 나머지 11동은 中部型配置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12) 兩通型 또는 田字型평면이라고도 불리는 형식으로 주택의 몸채에 부엌과 장지를 併置하고 그 옆에 안방·웃방 및 사랑방을 田字型으로 배치한다. 장지와 부엌 사이에는 벽체가 없고 부엌쪽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장지는 다른 지방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부엌마당의 연장일 수도 있고, 또 그 옆방들과의 연장일 수도 있고 보통 식사나 家族들의 居室的인 역할도 하며 또 간단한 室內作業을 하는 곳이며, 이것은 冬期의 혹한에서 나타난 形狀인 듯 하다. 또 흔히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마루방은 없고 다만 방 앞에 좁은 툇마루가 있을 정도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부엌에 연달아 방앗간 또는 축사 등이 몸채와 一体가 되어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 또한 冬期의 가축보호와 작업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金正基, 앞책, p.178)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으로는 中部地方에 속하면서 생활과 문화환경이 서울과도 깊은 관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추측할 수 있다.

5. 결 론

嶺西地方은 嶺東地方과 地理的, 環境的으로 매우 다르며, 民家의 平面類型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民家의 平面類型은 北部型, 中部型, 서울型등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마루가 있는 홑집 ㄱ자형은 주로 춘천, 영월, 원주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중부권인 경기, 충청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대부분 나타난다. 또한 겹집형은 횡성, 정선, 평창, 인제 등 山間地域에서 대부분 보이고 있다.

2) 마루가 있는 홑집 ㄱ자형에서 15동중 3동만이 몸채에서 中部型이고 12동은 서울型이다. 사랑채가 있는 12棟의 민가에서는 1동만이 서울型이고 11동은 中部型이다. 이러한 특징은 지리적·생활·문화환경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3) 사랑채가 있는 14동에서 대문의 위치를 보면 남향이 9동으로 가장 많고, 동향이 3동, 동남·서남향이 각각 1동으로 우리나라 주택에서 남향 대문의 선호도를 잘 보이고 있다.

民家 연구는 급속히 사라져 가는 民家를 계속 정확히 채록하는 기초적 단계를 거쳐 체계적인 분석과 유형분류를 통한 밀도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등 관련분야와 연계된 보다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 지리라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姜榮煥 :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技文堂, 1991.
2. 江原道 : 江原道山間部落 민속학술조사 보고서, 1980.
3. 金完植 外: 韓國의 氣候, 一志社,1982.
4. 金楨丸 : 한국 전통주택의 형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1989.
5. 金鴻植 : 韓國의 民家(1,2권), 한길사, 1992.
6. 朴胤成 : 住居論, 文運堂, 1987.
7. 유승용 : 嶺東地方의 民家에 관한 연구, 강원대 논문집, 제9집, 1984.
8. 유승용 外 : 春川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한림대학교 박물관, 1994.
9. 유승용 外 : 寧越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한림대학교 박물관, 1995.
10. 유승용 外 : 麟蹄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한림대학교 박물관, 1996.
11. 유승용 外: 原州의 歷史와 文化遺蹟, 강원향토문화 연구회, 1997.
12. 尹張燮 : 韓國建築研究, 東明社, 1983.
13. 尹張燮 : 韓國建築史論, 技文堂. 1990.
14. 이규목 譯 : 住居形態와 文化, 悅話堂, 1985.
15. 李在勳 : 居住의 槪念, 태림문화사,1991.
16. 李鎬洌 : 朝鮮前期 住宅史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1991.
17. 張保雄 : 韓國의 民家研究, 보진제출판사, 1981.